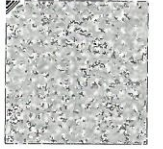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324호 2021년 1월 24일(나해)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 입당송 | 시편 96(95), 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 제1독서 | 요나 3,1-5.10

## 화답송 | 시편 25(24), 4-5, 7, 8.6과 7, 8.8-9(◎ 4)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

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난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제2독서 | 1코린 7,29-31

## 복음환호송 | 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음 | 마르 1,14-20

## 영성체송 | 시편 34(33), 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이광휘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

대신학교에 입학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는 수능 이후, 교리 시험과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세 분 교수 신부님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니?”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공동번역 마태 9,37-38)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무사히 대신학교에 합격했고, 그 말씀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를 부르시는 것이라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지금까지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매일의 전례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는 청자인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마지막으로 따르는, 즉 실천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의 길이나 그릇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회답송 시편 25편 참조)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이사 48,17)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올바른 길, 당신의 길로 부르시는지 살펴봅시다.

제1독서에서 요나 예언자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요나 3,4)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 예언자의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악한 마음을 돌려먹고서 단식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선한 마음(실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시몬과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복음과 주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따르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신앙 안에서 믿으며, 회심하여 실천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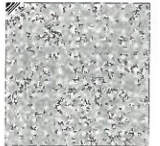
소금성당, 콜롬비아 보고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암염을 캐던 광부들의 손길로 빛어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둠이 나를 감쌀 때, 하느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이라던 이름 모를 광부의 거친 손끝에서 빛어진 십자가는, 믿음과 회개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손끝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

2019년에 저는 '청년 희망로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과 함께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걷는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일명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 불리는 순례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우려 해도 그들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시도하려는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살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극복했던 경험들이 누적되어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내적인 힘이 길러지기에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떠올렸던 것이 '카미노 데 산티아고'였습니다. 8명의 청년을 선발하기 위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공모하였고, 신청서를 받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응모 기간이 짧은 데다 총 일정이 45일이나 되었기에, 30여 명 정도의 청년이 응모하였지만, 인터뷰에는 그보다 적은 수의 청년만이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청년에게 '청년 희망로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8명을 뽑을 수밖에 없었지요. 인터뷰 했던 청년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한 그 청년은 몹시 위축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청년의 삶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계속해서 취업이 되지 않자 3년째가 되던 해에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졌고, 부모님의 기대와 보이지 않는 압박,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청년 희망로드'라는 프로그램의 응모 공고를 접하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 저 고통을 잠시 잊고 싶어 응모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응모하는 것 자체를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합격한 후에 허락을 받을 예정이었던데요. 취준생이 어디 다른 곳에 정신을 파느냐며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스물일곱 살이 되도록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부모님께서 정해주는 곳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뷰했던 저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면접관 모두가 그 청년만은 꼭 합격시키자는 데에 일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선발되었음을 알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선발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짐작건대 부모님께 자신의 뜻이 꺾인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청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이제 밤에  
등불을  
저의 길에  
빛이 옵니다  
시편 119.105

권운혜 로사 | 월곡등성당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으면

2016년 감독: 켄 로치

모든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무게는 누구나 같은데도 세상은 이따금 이를 무시하려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의 자존심을 가볍고 하찮게 여깁니다.

도움, 자선, 나눔, 구제, 참 좋은 것이지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아름답고, 따뜻한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물질적 도움이 최소한의 삶과 인간다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구차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잃게 만든다면 사랑과 복지가 아니라 차별과 상처가 아닐까요.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분)는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합니다. 심장병으로 40년 동안 해오던 목수 일을 중단하고,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심뿐이었으니까요. 정부가 고용한 파견업체 의료 전문가와 심사관의 무성의한 태도, 문의 전화 한 통을 위해 무려 1시간 48분을 기다리게 한 ARS, 복잡한 행정 절차, 조금의 융통성도 배려도 없이 ‘연필 시대의 사람’에게 인터넷을 강요하는 세상 앞에서 그는 좌절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케이티(헤일리 스콰이어 분)는 어렵고요. 2년 동안의 노숙자 쉼터 생활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버스를 잘못 타 심사에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생활보조금 지급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갈 위기에 처합니다. 항의해 보지만 “정시 출석은 의무사항”, “원칙이 우선”이라는 냉랭한 말만 듣습니다. 영국만 이럴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떠들며 온갖 복지와 사회보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시혜자로 착각하는 오만한 공무원들과 편익주의 시스템이란 높은 벽이 사람들을 힘들고 구차하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사람은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라고 말하면서 돌아섭니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진정한 나눔과 구제는 다수결도, 선택도, 숫자도 아니라고 말합니

다. 알량한 돈 몇 푼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전기가 끊겨 추위에 떠는 케이티 가족을 위해 돈을 몰래 놓고 나옵니다. 자신의 목공 기술로 집을 고쳐줍니다. 너무 배가 고파 식료품 지원소에서 통조림을 허겁지겁 먹고는 눈물을 쏟아내는 케이티에게 “자네 잘못 아니야. 부끄러워할 것 없어”라고 말해줍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애뜻하게 감싸주면서도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그는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의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굶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선을 구걸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를 성찰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다니엘 블레이크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오늘(1월 24일)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을 거행하며 성찰하고 전파하도록 이 날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일)은 ‘해의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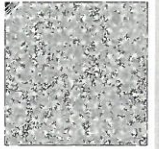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1년 1월 28일 이상훈 리노 신부(84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구청알림**

**신임사목위원 교육**

대상: 본당 신임사목위원 / 회비: 1만원(1월26일 마감)  
 방식: 2월중 온라인 강의로 진행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신청안내**

때·코스: 2월16일(화) 오후 1시부터,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산순교성지) / 흑한기  
 (1, 2월) 순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1월2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  
 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2269-0413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20일(수)~2월2일(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제정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황 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Aperuit illis)>**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루카 24, 45)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는 주님께서 안 계신다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당신 신부에게 끊임없이 건네시는 그 살아 있는 말씀과 맺는 이 결정적인 관계가 언제나 주님 백성인 우리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느님 백성의 책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성경에 귀 기울이며, 일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하나로 모아 한 백성이 되게 해 줍니다.

성경과 신자들의 믿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로마 10, 17 참조), 믿는 이들은 전혀 거행 중에도 또 개인 기도와 성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성찬례 거행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는 주님 현존에서 힘을 얻어 역사의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구원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 악과 죽

음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말씀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이러한 구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성경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적힌 인간의 말들에서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계시 현장 12항 참조). 한편 성경을 쓰신 성령의 빛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늘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하느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이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어 우리가 숨 막히고 메마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정에 주님의 어머니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행복한 분이라고 불리셨습니다(루카 1, 45 참조).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요약정리: 황중호 베드로 신부(문화홍보국 차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0505-1306-1505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개별 면담)	온·오프라인	010-4241-1210 성소 담당
예수 고난회	2월6일(토) 18시~7일(일) 11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한국외방선교회	2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가정선교회 찬양·치유·회복 피정**  
때, 곳: 2월15일 14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찬양: 고영민 단장과 손현희 악기팀 / 문의: 010-6281-8626, 010-5710-6510, 010-4077-3954, 02)777-1773 대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 3월5일~7일, 3월15일~18일(추자도)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이론연구소 19기 신입생 모집** / 문의: 02)313-9973  
분야: 이론제작 및 연구(3년 과정) / 대상: 만 65세 미만  
실기시험: 2월20일(토)·2월22일(월) 10시30분(백1),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 개강: 2월15일 / www.catholicon.co.kr  
클래스 오픈 기념 얼리버드 할인혜택 기간: 1월15일~2월14일 / 100%페이백 말씀 챗봇지  
문의: 02)945-3300, 010-3092-1108 가톨릭ON

바이블가이드(성경입문가이드)	김효준 신부
성경 본문 zoom(Zoom in) 구세사 편 1	김혜운 수녀
늘푸른성경여정 구역 1(입문+창세기)	김영선 수녀
늘푸른성경여정신약(예수그리스도입문)	박기석 신부
지혜여정(이사야서 다니엘서 요나서)	박형순 신부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월16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ICPE선교회 제자훈련** / 문의: 010-7548-6664  
대상: 대학생, 청년 / 대면 혹은 비대면  
때, 곳: 2월27일(토)~2022년 1월, ICPE선교회(합정동)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  
(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3주차**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 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정훈 신부(coffee master)

**예수회 특별 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예수회센터)**  
강사: 주원준 박사 및 예수회 사제·수사(김정택·조인영·송봉모·정재천·전주희·김우중)  
때, 곳: 3월9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화) 10시~11시55분(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허위 과정**  
게임 개발,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십시오  
모집분야: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홈페이지(https://www.soganggame.ac.kr) 입학  
사이트 참조 / 문의: 02)705-8678, 02)705-8218

### 모임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새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문의: 010-9720-7015 성소 담당

###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월27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인기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꼬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쉽고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전화·온라인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렐자비의수녀회)

**응암동성당 '요섭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일-강의 3월4일부터 매주(목) 10시~12시, 그룹훈련 기본과정-13시~15시, 금요일-3월5일부터 매주(금) 비대면 온라인 강의
생활 속의 심리학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학 기초이론-3월4일~4월15일 매주(목) 7주 과정
사목상담	대상-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 10시~12시·13시~16시 / 무료 10회기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 교육·미술심리상담사  
격과정: 2월15일~3월15일(월) 10시~16시(5회, 6명)

###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2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740-9708(http://songsin.catholic.ac.kr)

**세검정성당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관리인(계약직 2명) / 업무: 시설물 관리, 방호, 미화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문의: 02)3217-9595(내선 201·202)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월31일(일)까지 팩스(02)3217-9200, 이메일(khly88@naver.com), 우편·방문(우 03018, 서울시 중로구 세검정로 6길 38(신영동))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세탁근무자, 시설관리인 각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시설관리인 자격·도시가스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2급·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서류: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 참조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월26일(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신앙 편지 50통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  
바오로딸 | 408쪽 | 1만8천원  
문의: 02)944-0944

저명한 성서학자인 저자가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가상의 가족에게 편지 50통을 보낸다. 그 가족은 세례 받지 않은 아버지, 냉담 중인 어머니, 첫 영성체를 한 아홉 살 딸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현실 생활과 연결하여 친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신간  
구약성경 에세이

강수원 지음  
바오로딸 | 392쪽 | 1만6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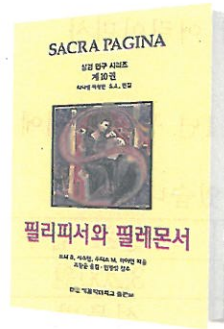
구약성경 해설을 에세이 형식에 담아 쓴 성경 입문서이다. 저자 강수원 신부는 신자들이 구약성경을 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자들이 구약성경을 흥미 있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했다.



신간  
말씀의 우물터

강운철 지음  
생활성서사 | 335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길고도 먼 외길 40여 년의 사제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교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을 일곱 가지 주제로 엮어 선물로 남기는 노사제의 신앙 에세이다. 저자는, 먼 길을 홀로 떠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것들을 챙겨 주듯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을 이 책에 담았다.



신간  
필리피서와 필레몬서  
(성경연구시리즈 제1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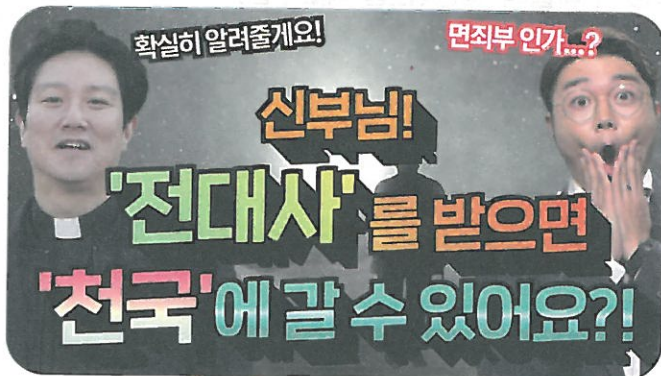
보니B. 서스턴, 주디스M. 라이언 지음  
기쁜소식 | 460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성경역사연구시리즈 열 번째 책이다. 짧은 두 편의 서간을 다룬 이 주석서에서 저자 주디스 M. 라이언은 생생한 번역, 각 절을 위한 비평적 주해, 그리고 지정된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cpbc TV\_가톨릭콘텐츠의 모든것

유튜브 검색창에 "문질문질"을 입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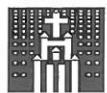
댓글로 질문을 달아 주시면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가톨릭질문쇼 <문질문질>

올해는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전대사'가 대체 뭐고,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대신 질문해드리는 질문쇼 <문질문질>을 보면 고민 해결~!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이 직접 알려주는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받는 법' 시청하시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톨릭 질문쇼 <문질문질>은 유튜브 'cpbc TV'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2164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체신심미사	매 월 첫째 금요일 오전 10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축 하 합 니 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영성체를  
모신 22명의 천사들을  
축하해주세요.**

### ◎ 초등부 첫영성체

일시 : 1월 23일(토) 오후 2시/4시 미사

### ◎ 복사단 입단식

일시 : 1월 30일(토) 오후 3시 어린이미사

###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화)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8,000원	3,2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 오늘은 리모델링 2차현금이 있습니다.

◎ 성체 신심 미사 : 2월 5일(금) 오전 10시

◎ 성모 신심 미사 : 2월 6일(토) 오전 10시

### ◎ 세계 병자의 날 미사 안내

2월 11일(목) 오전 10시 미사는 몸과 마음(영적으로도) 아파서 힘들어 하는 분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2월 12일(금) 설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 설날합동위령미사신청은 2월 7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 재의 수요일 미사안내

오는 2월 17일(수)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매 미사 중에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단식, 금육).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축복식은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실시합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 10.)

총세대	책정세대	미책정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206	999	1,207	45.3%	42.9%	10.9%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0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 리모델링 기금 (12월 21일~1월 10일)

이지만 .....육십오만원    장직현 .....일백만원  
누 계 .....874,032,781원

### ◎ 연령회 감사헌금

고 김영실 바오로 상가 .....삼십만원

### ◎ 감사헌금 (1월 11일~17일)

허춘자 .....이십만원    문영백 .....일십만원  
이창수 .....일십만원    감민주 .....일십만원  
홍미숙 .....일백일십만원    이의상 .....이만원

###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2주일)

교무금 .....8,860,000원